

1.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을 펼치면, 많은 교훈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할 것 같고, 또 온유해야만 할 것 같지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화평케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예수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2. 그런데 그 중에는, 하고 싶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못할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꼭 박해를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은, 복된 자가 되고는 싶지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당하는 일”**은 굳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3. 이쯤 되면, 산상수훈이 거의 율법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만이라도 실패하면, 복된 자가 되기는 글렀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어느덧 우리 마음 속에서는, 공홀히 여길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에서는 실패하겠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아! 이 복도 반쪽 짜리가 되겠구나!라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여러분, 산상수훈은 그런 강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을 얻는 비법도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런 비밀을 쏟아내신 것도 아닙니다. 이건 선포일 뿐입니다. 단지 여전히 이것을 율법으로 믿는 자들이, 8개를 다 지켜야 한다느니,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된다느니 하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5. 오랜 기간 저는 강박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잔디밭을 편히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골프장?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세계는 지금까지도 불가능한 운동입니다. 왜? 지뢰와 부비트랩 수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경험이 주는,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입니다.
6.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갈릴리 호숫가의 그 넓은 초원과 언덕을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복이 율법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그걸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소위 율법주의자들은, 잔디밭에 올라서서도, 제일 먼저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7. 마태복음 6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도, 율법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건 명령이 아니지요. 이것은, 믿음을 촉구하는 격려입니다. 염려하는 자에게 그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그를 도리어 복된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8. 부연하자면, 25절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는 형태만 명령형입니다. 이건 다독거리는 위로의 말이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란다고, 염려가 없어집니까?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외치면, 물러갑니까? 이건, 우는 아이에게 **“울지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9.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명령이라면, 또 이것이 만약 무슨 율법의 한 조항이라면,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또 다시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 여러분 인간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지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 수 없는 것이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다독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그 염려를 내려놓게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계시지요. 배고플 것을 염려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11.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형편과 능력이 못되는 자들은 범법자가 되어 버리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그럼으로써 죄책감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12.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나면, 짜장면이나 짬뽕이나도 결단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는, 이방인이었을 때나 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3. 그럼, 이방인이 아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율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건 율법이 아니라 참 기쁨과 참 만족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14. 이제 어떻게 그 염려가 만족으로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목숨과 음식을 우리 앞에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폐일언하고, 목숨이 더 중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한지, 묻지도 않으십니다. 또 몸과 의복을 제시하시고는, 당연히 몸이 더 중요하다고 선포하시지요.
15. 이렇게 급하게 결론지으시는 이유는, 무엇이 더 중한 지를 논쟁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회의할 여지도 없이 결론부터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서 그 염려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지요.
16. 뒤집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게 되면서부터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의 염려란, 음식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7. 아침에 딸녀석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사온 옷이 밤새 줄어들었기 때문이지요. 엄마가 손빨래 해야 하는데, 세탁기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엄마는 염려하지요. 어떻게 이걸 되돌리지? 옷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순서가 바뀌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옷을 찾는 딸 걱정을 먼저 하라고!
18.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지요.
19.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공중의 새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새가 나보다 더 나아보일 때 생기지요. 저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굶지도 않고

잘 산다, 나보다 더! 저 사람은 금수저야!

20. 시편 7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아삽이 말하기를, “나는 거의 실족할뻔 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실족할 뻔 했다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비교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필 아삽이 비교하는 것이 새가 아니라 “악인”인 것입니다.
21. 그 악인을 보니, “그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봐주지 않는 이상, 이럴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이 악인을 길러주시지 않으시면, 저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22. 그러니까, 근심이나 염려는,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망하면서 더 커지지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참으로 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 반대라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질투심을 가라앉혀 주십니다. 심고 거두고 모아 들이느라 고생하는 너희가 더 귀하다고!!
23.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나면,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저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지, 또 왜 저 부패한 정권이 승승장구하는지, 의분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는 것입니다.
24. 염려 그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거둬 의복보다 몸이 더 중하고, 또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하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누구에게? “아니라고, 의복이 더 중요하고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의 말이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씀대로 무엇이 더 중한지를 판단하게 된다면, 참으로 그때, 짜증과 질투,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25.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선포하십니다. 이번에는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모든 영광입니다. 마치 마술의 거울에게 묻고 있는 왕비의 모습과도 같지요. “거울아~ 거울아 둘 중 누가 더 예쁘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도, 들의 백합화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6. 염려는, 백합화와 솔로몬 왕을 비교했을 때 시작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서 갈등이 시작되지요. 새의 신세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될 때,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걱정은 더욱 깊어지지요. 그래서 결국, “뭐니 뭐니해도 솔로몬이지!”라고 말하는 순간, 근심은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27. 바로 이 모든 순간 순간에서 예수는 그게 아님을 선포하십니다. 백합화가 더 낫다고, 너희가 더 중하다고,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다독여 주시는 것입니다.
28. 그래서 믿음은, 백합화가 더 낫다는 예수의 말씀에 솔로몬이 더 나아보이는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악인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이 장수하고, 죽을 때마저도 고통이 없는 것을 볼 때, 악인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의구심과 억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29. 마지막으로 30절을 읽어 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